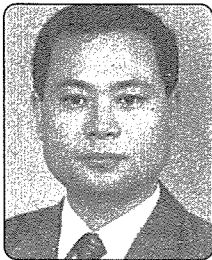


# 2006년 하반기 주요 환경정책 추진방향



김 학 주

환경부 정책총괄과장

☎ 02-2110-6670 hj54@me.go.kr

〈필자약력〉

학 력

- 한국항공대학 졸업('78)
- KDI 국제대학원 졸업('98)

주요경력

- 기술고시 제16회('82.1.15 사무관 임관)
- 환경부 응용수관리과('95)
- 수질개선기획단('97)
- 생활오수과장, 자원재활용과장, 하수도과장('99~'01)
- 환경부 수질보전국 수질정책과장('02)
- 환경부 환경정책실 환경기술과장('03~'04)
- 환경부 환경정책실 정책총괄과장('05.1~)

## I. 최근의 환경정책 추진동향

우리나라 국민의 환경의식과 삶의질에 대한 기대수준이 꾸준히 높아지면서 가장 발빠르게 대응해야 하는 행정분야가 환경일 것이다. 90년대에는 하수처리장, 폐기물 매립장등 환경기초시설의 보급만으로도 삶의질 개선을 피부로 느낄 수 있었으나, 21세기에 들어와서는 생활주변의 화학물질관리, 환경성 질환에 대한 대책 등 점점 높은 수준의 환경관리정책이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들어 새로운 화학물질의 사용, 산업

구조의 고도화 등의 영향으로 환경성 질환과 같은 환경문제가 새로이 등장하고 있으나, 정부차원의 관리대책은 아직 초기단계에 있다.

아울러, 지구적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도 다양화 되고 있으며, 특히 환경에 대한 국가적 대응능력이 곧 국가의 경쟁력을 가늠할 수 있는 지표가 되고 있다.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 출범에 따라 세계경제의 통합 및 환경과 무역의 연계가 강화되고 있으며, 사전예방적 청정기술과 환경친화적 생산기술이 상용화되어 전통적인 환경문제는 점차 개선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 지구온난화, 해양오염, 산림파괴 등 지난 100년간 급격히 진행되어 온 지구환경파괴에 전지구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국가간 환경협력과 환경규제의 국제표준화(global standardization)가 활발히 추진 중이며, 2003년 기준으로 국제환경관련협약은 221개에 달한다. 최근에는 EU를 중심으로 전기전자, 자동차, 화학 등의 분야에서 제품에 대한 국제환경규제가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환경부는 국민의 삶의질 향상뿐만 아니라,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해, 그동안의 환경정책 추진 성과 및 평가를 바탕으로 올해는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환경보건정책 강화, 지속가능한 순환경제사회 구축 등 5대 정책목표를 추진해 '아름다운 환경, 건강한 미래'를 건설하기 위해 23개 주요과제를 꾸준히 추진해 오고 있다.

## II. 분야별 환경정책 추진상황 및 하반기 추진계획

### 1.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환경보건 강화

환경부는 그간 수질,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공공

투자를 확대하고 선진환경정책을 지속적으로 도입하여 환경개선에 큰 효과를 거두어 왔으나, 지금까지의 오염매체별 관리정책만으로는 국민의 새로운 삶의 양식을 충족시켜 주기에는 한계가 있음을 인식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올해 2월 환경보건정책의 중장기 로드맵이자 실천계획인 『환경보건정책 10개년 종합계획』을 확정·발표하고 환경보건정책을 본격 추진하기 위해 올해를 “환경보건 원년”으로 선언하였다. 정책추진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환경보건증진법안』 제정할 계획이며, 올해 3월에 법안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하였다. 하반기에는 연구용역의 결과 및 전문가의견수렴 등을 기초로 법률의 초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유해물질로부터 어린이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3월에 소비자단체들과 공동으로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여 가동중에 있으며, 상반기까지 조사대상 제품을 선정하여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인 어린이 사용제품에 대한 모니터링을 해나갈 계획이다. 한편, 어린이 유해물질 노출저감을 위한 연구도 상반기중 발주되어 하반기에는 연구가 본격화될 것이다.

그 외에 산모-영유아 등 민감계층 건강영향조사 사업, 어패류 등 생체내 수은축적조사 및 생물정보기법 개발용역, 도시, 산단 유형별 환경성질환조사 등 환경오염 민감계층에 대한 다각적인 연구가 하반기에는 진행되어 이분야에 대한 정보를 축적하고 정책개발을 추진하게 될 것이다.

아울러, 폐광, 산단 등 오염취약 지역에 대하여 주민의 건강영향을 조사할 계획인바, 폐금속광산 주변 주민에 대한 건강영향조사를 4월부터 실시하고 있으며, 항생제 등 의약품 노출실태 건강영향조사 연구도 4월에 착수하였다. 하반기에는 취약지역에 대한 건강영향조사를 마무리하고 관리대책을 차근차근 수립해 나갈 계획이다.

다이옥신, 피시비(PCBs)와 같이 발암위험물질인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다이옥신 등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을 지난 4월에 입법예고한 바 있으며, 하반기에는 의견수렴등을 통해 법안을 구체화시켜나갈 계획이다. 2015년까지 PCBs를 완전히 근절하기 위해 전국의 학교, 병원 등에서 사용중인 변압기·콘덴서 4,000여대의 PCBs 오염실태를 조사하여 적정처리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우선, 현행 PCB 함유 폐기물의 적정수거 및 보관대책을 4월에 수립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적극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며, PCBs 적정관리를 위한 폐기물관리법 개정 사항 검토 및 오염실태 조사용역도 하반기에 착수할 계획이다.

## 2. 자원순환을 통한 사회의 지속가능성 제고

21세기 환경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지속가능발전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사회 전분야의 환경관리 역량을 제고하고 녹색생산·녹색소비와 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전략적으로 추진하여 순환경제 사회로 전환해 나가고자 한다.

그동안 폐기물의 감량, 재활용에 치중하였던 폐기물관리정책을 획기적으로 전환하여 폐기물이 자원으로 재순환되도록 하기 위한 “자원순환사회 조성” 정책을 추진한다. 폐기물의 발생억제, 순환적 이용 및 적정한 처리를 통해 환경부하를 최소화 하면서 자연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국가 자원순환계획”을 수립하고 가칭 『자원순환사회 촉진법』의 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 하수처리장 7개소에는 하수 재이용 시설을 설치(총 1,023억원)하여 연간 8천만 톤의 하수처리수를 하천유지용수 등으로 재이용하는 등 자원의 재순환을 위한 다양한 연구와 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더불어 지속가능발전의 핵심이 되는 환경과 경제의 상생을 위해 미래첨단환경기술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환경산업을 수출전략산업으로 중점 육성하

고, 이를 토대로 2009년까지 환경산업 수출액 2조 원 목표를 달성하고자 한다.

우선, 올해 3월에 '06년도 환경산업 해외진출지원계획을 수립하였다. 그리고, 중국의 베이징 올림픽, 상하이 엑스포 등의 환경특수와 동남아·중동 지역에서 급증하는 상하수도 수요에 대응한 전방위적인 환경산업 마케팅 활동을 펼치기 위해 올해 중국에 환경산업 수출협력단을 2차례 파견하고 동·서남아 지역 2개국에서 한국 환경산업·기술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 4월에는 베트남 환경산업 전시회 및 기술설명회에 정부, 산업계 등에서 참여한 바 있다.

미래전략산업인 물 산업 육성을 위해 올해 2월에 육성방안을 마련하였으며, 물산업육성 5개년 추진계획을 하반기에는 수립해 나가, 시장 규모를 2015년까지 20조원으로 확대하고 해외진출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녹색소비의 확산을 위해 친환경상품 진흥원에 구매지원팀을 지난 3월에 설치하여 하반기에는 적극적으로 구매지원활동을 할 계획이며, 공공기관의 구매담당자를 상대로 구매지침 순회교육도 실시하였다.

### 3. 생명력 있는 국토, 느끼는 환경

환경부에서는 2005년에 전략환경평가제도를 도입하여 개발사업의 이해당사자들이 함께 사업계획에 참여함으로써 사업 추진시 발생하는 생태계 파괴 논란 등 사회적 갈등을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아직 사업자의 친환경적 개발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인하여 제도의 효과가 단기에 나타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우수 생태계 및 생물자원을 개발사업으로부터 보전할 수 있는 체계적인 대책이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2006년부터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성 검토는 강화하되 사업자 불편은 최소화하고, 체계적인 생물자원보전대책을 적극 추진하고자 한다.

'전략환경평가제도'를 올해 6월부터 본격 시행함으로써 '선 계획-후 개발' 원칙에 의해 개발사업을 추진하며,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레저·관광단지, 도시·택지개발 사업에 대한 친환경적 추진 지침을 마련하기 위해 5월부터 연구용역을 추진중에 있으며, 하반기에는 본격적인 연구가 진행될 것이다. 또한, 행정중심복합도시에 대한 『환경성검토평가단』을 지난 3월에 구성하였으며, 하반기에는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기본계획에 대한 환경성검토를 본격추진하여 친환경적인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환경영향평가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환경영향평가과정에 당해 사업에 이해관계가 있는 평가대행자의 참여를 배제하고, 시민단체 등에서도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나가고 있으며, 지난 4월부터 '환경영향평가 지원시스템' 구축을 위한 연구를 시작하여, 하반기에는 시스템이 모양을 갖추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환경을 보호의 대상으로 뿐만 아니라, 직접 느낄 수 있는 대상으로 가꾸어 국민이 잘 보전된 자연환경을 즐기게 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킴과 동시에 환경보호의 필요성을 인식하도록 자연환경 관리개념을 확대할 계획이다.

올해 중에 전국을 5대 권역별로 구분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생태체험테마를 선정하고 이를 친환경적으로 연결하는 국토생태 탐방로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가고 환경부 홈페이지에 『자연으로 가는 길』 배너를 설치해 생태탐방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 4.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환경 개선

국민의 소득 증가에 따라 친환경적 생활문화가 확대되고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환경에 대한 국민적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아직 대도시의 대기오염도는 OECD 국가의 주요 도시 중 최하위 수준이며, 수돗물 불순 등 생활주변의 환경의 질은 국민의 기대수준에 못 미치고 있다. 이에

올해는 그간 추진해 온 선진환경정책의 가시적 성과를 창출하여 국민의 체감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자 한다.

먼저, 대기질 개선을 위해 금년부터 수도권에 운행중인 경유차량에 대한 관리가 대폭 강화되고, 대구, 부산 등 수도권 외의 오염이 심각한 대도시를 대상으로 대기개선대책도 본격 추진한다. 수도권에서 운행중인 경유차량중 보증기간이 경과한 것은 매년배출허용기준을 현재의 2배 이상으로 강화하며 기준초과차량은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차로 개조하도록 한다. 또한, 수도권 3개 시·도별로 지역배출허용총량을 설정하고 환경용량 범위 안에서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수도권 지역배출 총량제』가 실시되며, 2007년 7월부터는 지역배출허용총량을 초과하는 사업장의 신설 또는 증설이 제한된다.

아울러, 지금까지 수도권에만 집중되던 대기개선대책을 5대 광역시로 확대하여 향후 10년간 대기개선목표를 설정하고 세부개선대책을 수립·추진할 계획이다.

### Ⅲ. 맺는 말

21세기는 환경에 대한 고려 없이는 건전한 성장을 기대할 수 없으며, 이는 곧 환경이 지속가능발전의 필수요소로 인식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정부정책에 있어서도 지속가능발전의 개념이 포함되어야 성공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환경부는 우리나라의 지속가능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 부처는 물론 시민단체, 국민과 협조하여 국가와 사회 전반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정부 정책의 수립 및 집행에서 환경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환경과 사회·경제 정책이 조화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범정부적인 협조체계를 강화하며, NGOs, 국민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정책을 함께 생산하고 이행하는 새로운 거버넌스를 실천함으로써 국가와 사회 전반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 "아름다운 환경과 건강한 미래"를 건설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b>새 가족</b>		협회 회원 가입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협회는 여러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p><b>관련업</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암엘에스(주) · 구연찬 ·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8가 58번지</li> <li>• 주식회사 · 대명익사 · 나환득 · 서울 금천구 독산동 302-10 대명빌딩</li> <li>• 한국바이오시스템(주) · 현문식 ·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39-1</li> <li>• 에스엔티과학주식회사 · 김태근 ·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1351-3</li> <li>• 토탈엔지니어링 · 김병학 · 서울 강동구 천호동 273-8</li> <li>• (주)소모정공 · 박원혁 · 서울 강남구 대치동 984-1 4층</li> <li>• 동방기계공업(주)김천지점 · 나경옥 경북 성주군 선남면 용신리 806-5</li> <li>• (주)대일환경기술 · 홍종인 · 대구 수성구 범어동 143-30</li> <li>• (주)서원금속 · 이인환 · 대구달성군 논공읍 상리 682-1</li> <li>• (주)세다 · 하영자 · 부산 중구 동광동2가 17-13</li> </ul> <p><b>방지단체</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현진기업 · 임응택 · 경기 이천시 부발읍 아미리 735</li> <li>• 금호환경기계(주) · 김기준 · 서울 강서구 등촌1동 650-1 4층</li> </ul> <p><b>배출2종</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미코세앤씨 · 김진수 · 충남 천안시 백석동 745-2</li> <li>• 한옥테크노글라스(주) · 윤석준 · 경북 구미시 산동면 봉산리</li> </ul> <p><b>배출3종</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신지화학도장공장 · 문창호 · 인천 남동구 고잔동 675-16</li> <li>• (주)포커스전자 · 강윤철 · 충북 청원군 오창면 각리 654-5</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유한항행 오창공장 · 차중근 · 충북 청원군 오창면 양청리 807-1</li> </ul> <p><b>배출4종</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성광사 · 구지욱 · 인천 남동구 고잔동 727-14 156B-15L</li> <li>• 현대징크메탈(주) · 강성훈 · 부산 사하구 정림동 980-30</li> <li>• 지오코머테리얼(주) · 박천호 · 충북 진천군 덕산면 신척리 425-5</li> <li>• (주)아셀코 · 김홍순 · 부산 강서구 송정동 1578-4</li> </ul> <p><b>배출6종</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신강전기 · 영재문 · 인천 서구 경서동 697-3 14B-4L</li> <li>• (주)유한하이테크 · 한주현 · 인천 남동구 고잔동 715-11 146B-12L</li> <li>• (주)서광전자 · 이희술 · 충남 천안시 차암동 13</li> <li>• (주)대덕바이오 · 성창근 · 충남 공주시 검상동 728-2</li> <li>• (주)세티아이 · 김재진 · 충남 당진군 합덕읍 도곡리 106-27</li> <li>• (주)은성테크닉스 · 권태영 · 충남 당진군 송악면 부곡리 563-13</li> <li>• 대우케이칼 · 정봉기 · 대전 대덕구 평촌동 150</li> <li>• 그린나래(주) · 배영호 · 충남 천안시 목천읍 문전리 401</li> <li>• 제이엔디씨키트 · 홍성준 · 인천 남동구 고잔동 742-4</li> <li>• 현대분체 · 명경식 · 인천 남동구 고잔동 651-13</li> <li>• (주)웨코 · 한기조 · 충북 음성군 원남면 문암리 104-1</li> <li>• 과산 현대공업사 · 윤계한 · 충북 괴산군 괴산읍 대서리 104-1</li> <li>• (주)제일전선 · 김경호 · 충북 음성군 갑곡면 상우리 384</li> </ul>	